

생활 이야기

만담가인 우쓰미 케이코씨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재미있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였다.

우쓰미씨는 이 말을 좋아해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나도 나만의 격언을 가지고 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먼저 웃음을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나 자신을 타이른다.

- 가네히라 케노스케의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중에서 -

누군가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남의 웃음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좋은 웃음, 좋은 느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날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런지요.

暮らしの話

落語家であるウスマイケイコさんのお父さんが口癖のように言うことが面白い。

"私が笑えば鏡が笑う。"だった。

ウスマ氏はこの言葉が好きで自分の座右銘にしていると言う。

私も私だけの格言を持っている。

"鏡は先に笑わない。"

いつでもどこでも先に笑いを見せる生を暮したいと私自分に言い聞かせる。

-金平敬之助の鏡は先に笑わない中で-

誰かの清い笑いを見れば自然に気持ちがよくなります。しかし他人の笑いを待つことはありません。

今日からは私が先に良い笑い、良い感じを誰かに伝える日にして見るのは如何ですか？